

# 光日春秋

박범신



지난 해, 멀고 먼 터키에서 독자가 찾아 온 일이 있었다. 베이한 도안즈, 터키의 중부도시 카르세르에 있는 에르지예스대학 한국어과 4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 번역원이 주춧돌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에서 일등상을 받고 그 부상으로 번역원이 초청해 방한의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아름답고 단정한 외모에다가 눈이 커서 더욱 영민해 보이는 터키 처녀가 선택한 텍스트는 나의 초기 작품 '우리들의 장례식'.

단편 '우리들의 장례식'을 쓴 것은 아마 서른 살 무렵, 1976년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시절 여자중학교 국어교사로 일주일에 서른 시간 넘게 수업을 하면서 밤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퇴근하고 대학원에 갈 때는 매번 파김치처럼 지쳐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늘 졸기 시작했다. 그날도 졸다가 제때 내리지를 못하고 그만 대학 앞을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졸다 깨고 보니, 아주 낯선 곳이었다. 나를 내려놓고 버스가 부르름 하며 사라지고 나자 갑자기 적막해졌고, 그 적막 속으로 개천을 끼고 굽어있는 펼쳐진 낮은 지붕

과 판자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초겨울이라서 개천은 벌써 얼어있었고, 루핑으로 된 판자집 지붕을 위로 고압선이 도도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때마침 허긋허긋 진논개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곳이 장위동이라는 건

## 우리가 잊은 가난

나중에 알았다. 나는 무엇이 흘린 듯, 대학으로 되돌아가는 버스를 타는 대신 장위동 달동네 안길로 들어섰다. 고압선 전선주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고압선 철제 전선주 사이로 뚫려진 길이었다. 어둡신한 길을 따라 오십여 m를 들어갔을까. 판자집 추녀 밑에 싸구려 나무판 하나가 기대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 나무판의 아랫쪽에는 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논개비를 밟고 있었다.

땀속이 열린 좁은 재래식 부엌에서 늘 수수구레한 부부가 쭈그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노모가 죽었다고 했다.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서 조문객은 물론 이웃사람 하나도 와있지 않았다. “눈을 맞는데, 왜 관을 방에 들여놓지 않나요?” 나는 그만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고 말았다. 남자가 말없이 방문을 열고 어둡고 비좁은 방안을 보여주었다. 노모의 시신이 아랫쪽에 누워져 있었다. 놀랍게도, 방이 너무 작아서 기성품 나무관을 도저히 방 안에 들여놓을 수 없었다는 걸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다음날 대학원 수업에 가지 않았다. 하루 여섯 시간이 넘는 수업에 지칠 때

로 지쳤으나 나는 퇴근해서 공장 내 셋방에 돌아와 있어 '분노'로 밤새워 소설을 썼다. 발표할 곳도 없는 소설이었다. 그러나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내 자신이 이미 '화염병'이 되었으므로, 난 이를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우리들의 장례식'을 썼다. 한 모가 죽었으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한밤중 달동네 복관을 가르고 지나가는 개천 바닥에 노모를 남몰래 묻는다는 이야기였다.

“이 작품을 쓸 땐 당시처럼 먼 데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독자를 만날 날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소설 속 이야

기는 당시로서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터키에서 온 처녀에게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내가 쓴 우리나라의 '70년대 풍경'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간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젊은 제자들보다 멀고 먼 터키의 작은 도시에서 날아온 처녀와 말이 더 잘 통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내 젊은 제자들과 내 '새끼'들이 다 잊어버린,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불과 30여년밖에 안되는 그 역사를 터키의 처녀로부터 비로소 이해받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

당신은 지금 어떤가? 세상은 이제 남의 가난이나 불행에 대해선 아무도 분노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 그렇지만 때로 나는 묻는다. '발전'한 것이 맞기는 맞는가. 고통 받았던 과거를 기억하기도, 이해하기도 못하면서 꿈꾸는 것은 어쩌면 '꿈'이 아니라 천박한 '욕망'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허겁지겁 욕망을 쫓다 아우성치며 달려가다가도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애당초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가난이 오히려 선(善)이라고 말했던 세월을 한번쯤 굶어볼 일이다. 우리가 가진 게 아직도 터무니없이 적은 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작가-명치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 모아야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연구개발(R&D)특구 지역 대학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전남 현안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광주에선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핵심사업이 누락되거나 소폭 반영에 그쳤다. 전남에서도 J프로젝트 진입도로 개설과 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의 국비 투자 규모는 1조6천 265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했고 전남도는 4.6% 늘어난 5조2천855억원 수준이다. 광주·전남의 국비 투자 증가율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6.5%에 월

씬 미치지 못하고 부산·경남 등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부산은 17.1%, 경남은 12%나 늘어났다. 대구·경북에선 “기대보다 늘었다.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예산으로는 광주·전남의 발전에 기대할 수 없다. 연구개발 특구와 J프로젝트 등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이다. 국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성패의 관건인 민간자본이나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어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정부가 광주·전남의 '성장'이 걸린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전남도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치밀한 전략과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주·전남 현안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신입생 충원을 '전국 꼴찌' 전남지역 대학

전남지역 4년제 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 지역 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85.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지역 대학 충원율은 97.5%로 비교적 높았지만 전남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걱정이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사태는 심각하다. 충원율 70% 이하인 전국 20개 대학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학이 6곳에 달했고 최근 5년간 한 번도 충원율 50%를 넘지 못한 대학도 있었다. 충원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대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입생 미달사태는 예견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지원자 수는 수년 전부터 대학의 총 입학정원보다 적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대학을 제외하곤 지방의 군소 대학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상당수 지방대학 교수들은 입시철마다 일선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신입생 유치전을 펴고 있다.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대학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게 된다. 유치전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폐교를 해야 하는 대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법은 난립되어 있는 대학의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정원 축소와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남대와 여수대 등 일부 지방 국립대의 통폐합에는 성공했으나 사립대 등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학 스스로 통폐합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대학이 난립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방의 군소 대학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대학들의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無等鼓

랜드마크(landmarks)란 탐험가가 특정한 지역을 이동하는 중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요즘은 대형 구조물이나 고층 건물과 같이 특정지역이나 도시의 상징물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 붐이 일고 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짓기 경쟁이다. 여기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빌딩을 세워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초고층 빌딩 건축은 미국이 선도했다.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선 이후 뉴욕 맨하튼은 마천루 숲으로 뒤덮였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초고층 빌딩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4년 타이완에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이 들어섰으며 조만간 삼삼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 이미지를 바

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호주를 상징하는 관광 명소가 됐고 파리나 고층 건물과 같이 특정지역이나 도시의 상징물을 의미한다.

2012여수세계엑스포의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랜드마크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박람회 유치 당시 계획됐던 100m

높이의 타워 대신, 시멘트 회사의 높이 50m 사일로 2개에 유리관을 둘러 레이저로 이미지를 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2012년 세계박람회 대비해 여수에 파리 에펠탑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초고층 빌딩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4년 타이완에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이 들어섰으며 조만간 삼삼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랜드마크



#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창규



2008년 10월4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불꽃놀이가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은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갈리지만, 불꽃놀이는 만큼 문화의 차이나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공연도 없을 것이다. 이 불꽃놀이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

불꽃놀이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색과 모양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름다운 색이다. 불꽃의 색은 '연소'와 '불꽃반응'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다. 연소는 일반적으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 열, 불꽃 등을 내며 타는 현상을 가리킨다.

원소 중에는 연소하면서 특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한다. 해당 원소의 원자

송이가 퍼진 것 같은 모양으로, 연화 속에 성 대신에 소형 연화를 여러 개 넣은 것이다. 그러면 소형 연화가 시간차를 두고 터지면서 여러 송이의 국화를 밤하늘에 넓게 퍼준다. '휘슬'은 연화 안에 소리를 내는 휘슬소체를 넣어서 불꽃이 개화할 때 소리를 추가하는 것이고, '핑'은 성의 배열을 조정하여 불꽃은 성이 평면상의 원을 이루며 타오르는 것을 말한다.

불꽃놀이에도 연출이 필요하다. 성과 연화가 다양하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관객들이 금세 식상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 불꽃 제작자들이 경진대회를 하는 세계불꽃축제쯤 되면 개성 있는 연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불꽃의 크기, 개화 시간 등도 정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화선의 길이를 계산하여 제작해야 하고, 연화의 크기와 성의 양, 도발 고도, 개화 반경은 비

## 불꽃놀이, 그 화려함에 대하여

가 에너지를 받으면 들뜬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들뜬 원자는 가시광선 중에서 특정 파장의 세기가 유난히 강한 빛을 발하고, 그 때문에 우리 눈에는 특정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불꽃반응의 색이 백색이면 연소되는 물질 속에 알루미늄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란색이면 나트륨, 청색이면 구리, 빨강이면 스트론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불꽃놀이는 이와 같은 불꽃반응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예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불꽃놀이의 기본 형태는 발사포에 화약을 채워넣고 이 화약에 불을 붙여 그 폭발력으로 화공품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식이다. 이 화공품을 '연화(煙火)'라고 한다. 연화는 공 모양의 옥퍼, 즉 겹질 속에 활약이라는 이름의 화약과 '성(星, 또는 별이라고도 부른다)'을 채워 넣은 구조이다. 성은 한가운데에 핵 역할을 하는 무명씨 등을 넣고 발연제, 색화제 등의 여러 화약제가 혼합된 화약을 입혀서 만든다. 이 성의 구조에 따라 불꽃의 모양과 색이 결정된다.

불꽃이 폭발하는 것을 쫓아 비유하여 개화라고 한다. 개화의 모양은 당연히 연화의 내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국화'는 불꽃은 상수백 개가 360도로 퍼져 나가며 구형으로 개화한다. '야국'은 들뜬이 국화 여러

레한다. 즉 큰 연화일수록 많은 성이 들어가고 더 높은 곳에서 터뜨리며 개화 반경 또한 커진다.

21세기에도 많은 사람이 불꽃놀이를 즐기지만, 그 기원은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착상은 고대의 인도, 페르시아 등지에도 있었다고 하며 원시적인 형태의 연화가 등장한 것은 7세기 초 중국 수나라 양제 무렵이라고 한다. 13세기 화약발전 시기를 거쳐 15세기에는 유럽 각지로 퍼지면서 연화가 일반화되었다. 그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화의 근본적인 구조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최신 기술을 불꽃놀이에도 적용하여 더 정밀하고 다양한 연출을 이뤄내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발사의 통제에는 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연화 자체에도 컴퓨터 칩을 장착해 연화가 공중으로 올라간 후 개화하는 시간까지 제어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이 기술이 일부 사용됐다고 한다. 이렇듯 개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조명, 레이저, 음악과의 협연 또한 정교화 구사하게 되었다.

발사대를 물들이고 사람의 영향을 붙여놓는 불꽃은 전자기술의 발달로 상상력의 벽을 넘어 더 기발한 방향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과학칼럼니스트>

### 기고

정정일



광주시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실패한 후 부정적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 토론회, 시의회, 각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염원까지를 더해 광주시는 2015년 대회 유치에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는 공식 천명했다.

필자는 지난 5월 광주지역 호텔들 대표 80여명의 직원과 함께 FISU(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손님들을 맞은 경험과 광주를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대회 유치가 관광산업 발전에 미칠 효과 등에 대해 기대가 크다.

1923년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1997년 무주가 동계 대회를 유치했고, 2003년 대구가 하계 대회 유치를 통해 전혀 정보가 없었던 외국인들에게도 그 도시

## 국제대회 유치와 관광산업의 발전

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대구는 세계육상대회까지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음을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 1997년 이탈리아 시실리, 1999년 스페인 팔마, 2007년 태국 방콕에 이르기까지 과거 유치 도시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도 분명하다.

100여년(1914년 소공동 조선호텔이 시초) 역사의 국내 호텔 산업 또한 각종 국제 행사를 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성장은 실질 국민소득보다 외국인 관광객 수나 부동산 투자, 여가 시간 등 국내적 요인보다는 외래 관광객 수요 등 국제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 각종 국제 행사, 스포츠 대회 유치 등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호텔 혹은 관광업계 종사자 뿐만 아

야 한다. 관광상품과 연계해야 단순한 스포츠 대회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 환경이 국제화, 세계화 되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의 숙박 수요도 당연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 국민들의 소득 증대나 여가 문화의 변화 등으로 국내 호텔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의 거대호텔 체인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이런 환경에서 고부가 광고 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대회를 광주는 꼭 유치해야 한다. 그러면 밤잠을 설치가면서라도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전통을 외국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가 아니겠는가.

<신안파크호텔 총지배인>

## 장기 불황 저소득층 가정붕괴 이어져...정부 지원대책 절실

최근 생활고를 비판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앞으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소득 빈곤층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실적이 속출하고 소득도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삶의 버거워졌다. 이러한 생활 경제의 악화가 자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생활 불안과 경제 파탄이 가정 붕괴, 가정 붕괴로 이어진다. 급기가 사회에 대한 불만

으로 증폭돼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범사회적으로 저소득 국민층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지체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에서는 자살 사태의 주요 대상인 소액 신용불량자의 구제와 함께 저소득 국민층의 생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시현·인터넷 독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대체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2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